

# 광주·서울, 마이스(MICE) 공동 마케팅

### 서울시청서 광주시·서울시 등 4자 협약체결

### MICE 유치 경쟁력 제고·상생발전 공동 협력

광주시와 서울시가 마이스(MICE) 분야 공동 마케팅을 위해 손을 잡았다. 광주시는 13일 서울시장에서 서울시, 광주관광컨벤션뷰로, 서울관광재단 등 4자가 참여하는 'MICE 공동마케팅 상호 교류협약'을 체결하고 MICE 유치 경쟁력 제고와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해 양 도시가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항 광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 이용현 광주관광컨벤션뷰로 대표이사, 이재성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가 참석해 MICE 상품개발 및 운영과 공동 마케팅 등 마이스(MICE) 분야 협력을 약속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MICE 유치 확대를 위한 국내외 MICE 공동마케팅 ▲MICE 행사 외국인 참가자의 양 도시 투어프로그램 지원금 지원 ▲공동 MICE 마케팅을 위해 필요한 사업의 공동 추진 등이다.

양 도시는 앞으로 국내외 주요

MICE 전시회와 상담회 등에 참가해 MICE 상품을 알리기 위한 공동 마케팅을 펼치고 MICE 전문매체를 활용한 미디어광고와 웹진, 뉴스레터 등 온라인 마케팅을 활용한 홍보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외 MICE 주최자 등의 현장답사시 양 도시의 매력적인 명소를 함께 홍보하고, 양 도시를 연계한 투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MICE 행사를 대상(외국인 50명 이상 단체, 해당 지역 1박 이상으로 투여에 필요한 차량비, 식비 등 양 도시에서 각 1인당 1만원씩, 총 2만원 상당을 지원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서울시와의 MICE 공동 마케팅으로 광주비엔날레 등 국제행사를 전 세계에 알리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약 체결 이후 광주시는 28일 서울 코엑스에서 '2019 미래 전시·컨벤션서밋'에서 양 도시 간 MICE 공동 마케팅 지원사업을 소개할 예정이며,



앞으로 두 도시 간 다양한 홍보 프로모션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협약을 위해 양 도시는 지난 7월 실무진을 중심으로 협약의 세부 지원항목과 기준 등 실질적인 공동 협력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8월9일부터 열리고 있는 해외 MICE 전문 전시회인 '2019 ASAE 세계총회'에서는 공동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있다.

박항 광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서울시와의 이번 협약이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더욱 많은 신규 MICE

행사가 광주와 서울에서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며 "양 도시의 MICE 공동 마케팅이 큰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은홍 기자

### 마이스(MICE)란? 검색

기업회의(Meetings), 포상관광(Incentives), 국제회의(Conventions), 전시/이벤트(Exhibitions/Events)의 약어로 비즈니스 관광의 총칭

##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모·기념사업 '다채'

### 전남도, 영·호남 평화콘서트·글짓기 대회 등 개최

전남도는 18일故 김대중 대통령 서거 10주기를 맞아 다양한 추모행사 및 기념사업을 추진한다.

13일 도에 따르면 공식 추모행사 전날인 17일에는 영·호남의 예술인들이 김대중 전 대통령 정신을 기리

고 화합과 평화를 위한 영호남 평화콘서트를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에서 개최한다.

서거일인 18일에는 하의도 김대중 대통령 생가에서 10주기 추모식을 갖고 민주화와 국가발전을 위해 평생

헌신해온 고인의 넋을 기린다.

10일중에는 김대중 정신계승 글짓기 대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매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고 노벨평화상 수상 기념을 위한 각종 사업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김 전 대통령의 추모 전시회 및 국내 학술강좌를 위한 김대중 민주평화

아카데미를 비롯해 평화비즈니스, 김대중 글로벌 리더십 함양 경진대회, 노벨평화상 수상 기념 학술회의 및 기념식 등을 준비중이다.

정찬균 전남도 지치행정국장은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 남북 화해와 협력을 위해 역사에 많은 발자취를 남긴 위대한 지도자"라며 "김 전 대통령의 삶과 사상, 자취를 돌아볼 수 있는 기념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 정인화 의원 '소수점 정원제 폐지법' 대표 발의

### 시간선택제 공무원 처우 개선하는 '공무원법 개정안'

공무원 소수점 정원제를 폐지하여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정인화 국회의원은 최근 공무원의 정원을 정수로 표기하게 함으로써 소수점 정원제 운용으로 차별 받고 있는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현행법은 업무의 특성이나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시간선택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그런데 2016년도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에 시간선택

제공무원의 정원을 주당 총 근무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소수점 단위로 산정하여 나타낼 수 있다는 내용이 신설되고 난 뒤, 한 개인이 0.5명의 사람으로 취급되어 정원을 기준으로 하는 업무 장비를 개발적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정원의 정의 규정을 '기관 단위로 각 기관에 속하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인원을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수로 표시할 수'로 명시적으로 신설함으로써 소수

점 정원제를 폐지하고, 시간선택제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바로잡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인화 의원은 "0.5명 공무원이라는 비인격적 대우와 생계난을 겪는 시간 선택제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며 "초심을 잃지 않고 부당하게 차별받는 사회적 약자를 돕는 입법에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동 법안은 정인화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권미혁, 김병관, 김중민, 유성업, 윤영일, 이동섭, 이상현, 장정숙, 정동영, 최경환, 홍문표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광양=김승호 기자

## 동구, 마을커뮤니센터 마을사랑채 속속 들어서

'이웃이 있는 마을, 따뜻한 행복 동구'를 민선7기 구정목표로 정한 광주 동구가 '마을사랑채'로 명명한 마을커뮤니티센터를 속속 개소하고 마을공동체 복원에 박차를 가한다.

동구는 사업비 12억 원을 들여, 8월 중순 지산2동을 시작으로 내년 7월까지 학동, 산수동, 학운동, 지원1동 등 5개동에 마을사랑채를 차례로 개소할 예정이다. 지산2동은 구 동계부녀경로당, 학동은 구 남평주역 철도관사, 학운동은 구 학운어린이집을 각각 리모델링할 계획이며 산수동은 공개(空家), 지원1동은 주차장 부지를 활용해 건물을 신축한다.

공유부엌, 다목적실, 마을책방, 유아방 등을 갖춘 마을사랑채는 주민이 중심이 돼 마을현안을 해결하는 사랑방 역할을 하는 것은 물론 주민들을 위한 문화·복지·편익기능을 제공하는 통합 플랫폼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 서구,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행사 개최

광주 서구가 14일 오전 9시 30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 행사를 개최한다.

서구청 광장에 위치한 광주 서구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진행되는 이날 행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하고 올바른 역사적 정립을 위해 마련됐다.

시·구의원, 각계단체 대표, 주민,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하는 이날 행사는 기림사, 합동헌화, 릴레이 서명, 전남대학교 국악과 학생들의 추모공연 순으로 진행된다.

## 남구 "생활 중국어 배우실 분 지금 신청하세요"

광주 남구는 13일 "관내 주민들의 외국어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해 '생활 중국어 초급반' 프로그램에 참여 할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생활 중국어 초급반 프로그램은 남구 청소년수련관에서 오는 9월 2일부터 11월 4일까지 10주간에 걸쳐 매주 월요일마다 2시간씩 운영될 예정이다. 자기 소개를 비롯해 물건 거래와 특정 장소의 위치를 묻는 등 일상 생활을 하면서 흔하게 접하게 되는 사례 중심의 생활 중국어를 배울 수 있다.

중국어에 관심이 있는 관내 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수강료는 무료이다.

모집 인원은 선착순 25명이다. 참가 접수는 오는 21일까지이며, 광주남구 문화교육행사업을 통해서만 접수가 가능하다.

## 북구, 사회적경제기업 워라밸 확산 캠페인 실시

광주 북구가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및 기업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워라밸(Work & Life Balance) 확산에 적극 나서고 있다.

13일 북구에 따르면 지난 12일 관내 사회적기업 쉼어스(대표 조범준)을 방문해 기업대표 및 임직원들과 함께 '찾아가는 사회적경제기업 일·생활 균형 캠페인'을 실시했다.

'찾아가는 사회적경제기업 일·생활 균형 캠페인'은 일하는 방식과 직장문화 개선을 통해 일과 삶이 조화로운 근로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이번에 참여한 사회적기업은 결의대회를 통해 △오래 일하지 않기 △특별하게 일하기 △재대로 쉬기 등 3가지 핵심과제와 △관리자부터 실천하기의 1가지 기본과제를 실천해 나가기로 다짐했다.

## 광산구보건소, 금연아파트에 현판 전달

13일 광주 광산구보건소가 수완동 수안채리치 아파트에서 입주인대표, 관리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연아파트 현판을 개조했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아파트의 신청으로 보건소에서 지정한다. 세대 1/2 이상의 동의로 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만들 수 있다.

금연아파트 지정으로 수안채리치 아파트에서 광산구는 6개월간 지도점검과 홍보를 실시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도 부과한다.

금연아파트 신청은 입주자대표와 공동주택 관리자 등이 할 수 있고 자세한 안내는 건강증진과(960-8587)에서 한다.

임형택 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중사지와 더불어 신문산업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광고 직통 ☎ 062)224-5800  
팩 스 222-5547

■ 세무기장 · 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www.nhis.or.kr

"건강보험, 월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당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음으로써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금액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가구당 월평균 18만원 혜택

월보험료 납부 104,062원    건강보험 혜택 183,961원    1.77배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월급	고소득층	4분위	3분위	2분위	1분위
240,833원	125,531원	79,147원	48,103원	26,697원	
1.1배	1.7배	2.1배	2.7배	5.3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호남신문 공익 캠페인

"**딱 한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입니다**"

한 잔만 음주를 해도 운전대를 잡지 않고, 전날 과음 하거나 늦게까지 음주를 한 사람은 다음 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근을 하는 등 안전한 운전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다함께 약속해주세요